



## 동사구문론과 결합가이론으로 살펴본, 전도서12장9-10절의 해석학적 조명

오민수(대신대)

### 1. 들어가는 말

“ad pontes”라는 말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슬로건’이었다. 이러한 ‘슬로건’을 대변이라도 하듯, 로마 가톨릭 교회는 Vulgata를 공인역본으로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에 반하여, 개혁 진영의 성경은, 구약은 그 원문이었던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 본문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 성경 본문들은 만국의 언어로 지속적으로 번역되었다. 적어도 성경 접근에 있어서 모두가 성경 앞에 평등하게 설 수 있는 시대가 계속되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번역의 다양함은 본문을 접근하는 다각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여 신학의 풍요로운 선사해 주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신앙고백에 따른 성경본문 이해의 다채로움을 전시해 주는 하나의 진열장이 되기도 하였다.

구약의 본문을 접근함에 있어서 해석학적 바운더리를 넓히고 확장하기 전

www.kci.go.kr

에, 마소라 텍스트가 지시하고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번역과 해석학적 토대로 ‘동사 구문론’(verbal syntax)과 ‘동사 결합가’(verb valency)를 제안하는 바이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서 전도서 12장 9-10절에 적용될 수 있는 구문론과 결합가 이론에 국한하여 소개하기로 하며, 해당 소 단락의 마소라 본문의 의미론적 층위를 밝혀내고자 한다.

## 2. 동사 구문론적으로 본 전도서의 w<sup>o</sup>qatal의 기능

히브리어의 발전시기를 연대기적 선상에서 본다면, ‘고전 히브리어’(Classical Hebrew)를 BC 1000-586년<sup>1)</sup>까지 볼 수 있다.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들은 대부분 이 시기를 배경하고 있다. 포로기와 포로기 후기의 히브리어는 ‘후기 히브리어’(Late Hebrew)로 분류된다. 이후 히브리어는 연이어서 발전하는데, ‘미쉬나 히브리어’(Mishnaic Hebrew)<sup>2)</sup>에 이어 신약의 역사가 시작될 랍비 히브리어인 ‘탐나익 히브리어’(Tannaitic Hebrew)가<sup>3)</sup> 성립된다.<sup>4)</sup>

- 
- 1)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Zürich: TVZ, 1994), 204.
  - 2) Moses H. Segal,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1958), §156, 72. Segal vermutet, dass die Umgangssprache in der biblischen Zeit aller Wahrscheinlichkeit nach ganz nah zum Mittel-Hebräisch steht (Segal, 6f.). In Aufnahme dieser Stellungnahme vertritt Rendsburg die Meinung: >antecedents of MH are not just to be found in the later books of the Bible, but in the earlier books as well< (Rendsburg, Gary A., "Evidence of a Spoken Hebrew in Biblical Times," *Dissertations Abstracts International* 41 (1980), 2583-A; vgl. Hurvitz, A. "The Chronological Significance of 'Aramaisms' in Biblical Hebrew", *Israel Exploration Journal* 18 (1968), 234-240.
  - 3) Miguel P. Fernández, *An Introductory Grammar of Mishnaic Hebrew* (ANES 38; Leiden, 1997), 1-10. Im Anschluss an M. Bar-Asher, C. Rabin und E. Y. Kutscher ist Fernández der Meinung, dass Rabbinisches Hebräisch (»Tannaitic Hebrew and Amoraic Hebrew«) keine sukzessive Entwicklung des Klassisch-Hebräischen ist, sondern beides Dialekte mit zwei verschiedenen syntaktischen Systemen in vorexilischer Zeit sind. Die Pharisäer hätten eine dialektische Volkssprache übernommen und sie auf >the realm of religious discourse and debate« angewendet (9). Er schließt die Möglichkeit des Einflusses des Biblisch-Hebräischen auf das Rabbinische Hebräisch nicht aus; denn im Blick auf Stammformbildung und Bedeutung einiger Verbformen sind Überreste des Biblisch-Hebräischen partiell im Rabbinisch-Hebräischen vorhanden (10: »7. The influence of BH on RH1«).
  - 4) 김동혁, "궤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역사에서의 철자 및 음운의 유형론," 『구약논단』 66 (2017), 356-383.

단지, 동사 구문론적 측면에서만 w<sup>e</sup>qatal의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후기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w<sup>e</sup>qatal이 내러티브에서 wayyiqtol을 대치한다는 것이다.<sup>5)</sup>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전도서에는 w<sup>e</sup>qatal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여 담화(discourse)를 전진시키는 ‘후기 히브리어’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전 히브리어 문법서들<sup>6)</sup>은 전도서 1장 13절; 2장 5,9,11,13,15절; 5장 8절에 사용된 w<sup>e</sup>qatal은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후기 히브리어적 용법이 아니라, 고전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perfectum frequentativum(빈번의 완료=iterativum)임을 증언하였다. 다만 w<sup>e</sup>qatal이 다

---

이전까지 히브리어 문헌 연구에서 자료연구에서 성경 히브리어 자료가 끝나는 제2성전기 중반에서 미슈나(Mishnah)가 집대성 된 기원 후기부터 2세기 말까지 공백기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으로 자료의 연속성이 확보되었고 이로써 히브리어 발달의 그림이 성경시대의 성서 히브리어 → 쿨란 히브리어 → 미슈나(탄나) 히브리어(Mishnaic/Tannaitic Hebrew) → 랍비(아모라) 히브리어(Rabbinic/Amoraitic Hebrew)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쿠처(E. Y. Kutscher), 키르른(Elisha Qimron), 모라그(Shelomo Morag), 블라우(Joshua Blau), 아베그(Martin G. Abegg), 레이먼드(Eric D. Raymond) 등의 20세기 후반 학자들은 성서 히브리어와 미슈나 히브리어 사이에 위치한 쿨란 히브리어를 규정하기 위해 애써 왔다.

- 5)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Zürich: TVZ, 1994), 205; 비고, J. Joosten., "The Disappearance of Iterative WEQATAL in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Steven E. Fassberg & Avi Hurvitz (Eds.), *Biblical Hebrew Its Northwest Semitic Setting: Typ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Jerusalem: Magnes, 2006), 135–147, 145; A. Kropat, *Die Syntax des Autors der Chronik, verglichen mit der seiner Quelle. Ein Beitrag zur historischen Syntax des Hebräischen* (BZAW XVI; Gießen: A. Töpelmann, 1909), §6, 18. I. Young, "The „Northernisms“ of the the Israelite Narratives in Kings," *ZAH* 8 (1995), 62–70. Young은 전도서의 w<sup>e</sup>qatal 용법을 북이스라엘 방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6) B. Isaksson, *Studies in the Language of Qoheleth. With Special Emphasis an the Verbal System* (Acta Universitatis Uppsalsensis Studia Semitica Uppsalsensia 10; Uppsala, 1978), 23–38; S. R. Driver, *A Treatise*, §115, 129–136; *GK* §112pp, 53; *Joüon* §115b, 313; *König* §367h, 516; Kropat, A., *Die Syntax*, 20–21; *Waltke & O'Connor* §32.2, 540–541. dagegen von W. Soden, "Gab es im vorexilischen Hebräisch Aramaismen in der Bildung und der Verwendung von Verbalformen?," *ZAH* 4 (1991), 32–45, 36ff; 각주 2; >W–qatalti can also be found with the meaning of frequentative or durative 'imparfait' after any verbal form or nominal clause which has previously situated the action in the past << (*Joüon* & *Muraoka* §119v, 402). >>The later books show clear signs of a gradual collapse or deterioration of the classical tense system. [...] This tendency is typified by Ecclesiastes << (*Joüon* & *Muraoka* §119za, 405). >>the wSW forms have the same meaning and function as the SC forms without waw. [...] I have not been able to find instances of the constative aspect in relevance position (punctual aspect), nor the so-called case of coincidence (Γ3)<< (Isaksson, B., *Studies*, 140). Es ist noch umstritten, ob in der Fügung weqatal ein Waw consecutivum perfectum oder ein Waw copulativum vorliegt. Ob die Fügung weqatal als aramäischer Einfluss oder als gelernte Imitation des klassisch-hebräischen Stils verstanden werden soll, sei dahin gestellt. Allerdings kann die Häufigkeit dieser Fügung in den späteren Büchern des hebräischen Kanons einen Hinweis auf die Datierung geben.

른 동사(들의 결합) 형태들과 구별되게,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단순 동사형'(qatal, yiqtol)이나 '합성 동사형'(wayyiqtol, w<sup>c</sup>qatal), 그리고 분사형과 결합되어 문장 속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언어학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부재하였다.

셈어 어문학자, 바텔무스(R. Bartelmus)<sup>7)</sup>는 덴츠(A. Denz)<sup>8)</sup>와 코슈미더(E. Koschmieder)<sup>9)</sup>의 일반 언어 이론을 히브리어 동사구문에 적용하여 히브리어 동사체계를 노에틱(noetic)<sup>10)</sup> 이론체계 위에 세워서 기존의 히브리어 동사구문론의 여러 기능들을 이론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바텔무스에 따르면 히브리어는 '상대적 시제체계'(Relativtempusystem)<sup>11)</sup>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 시제체계에서 히브리어 동사 체계를 간략하게 요약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동사는 '주기능'(Hauptfunktion)과 부기능들(Nebenfunktionen)로 나누어진다. '주기능'은 다중 언어간 공통적인 요소로 공유하는 것이 시간에 준거를 둔다. 그래서 '주기능'은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선 위에서 '화자의

- 
- 7) R. Bartelmus,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äischen Allerweltswortes – zugleich ein Beitrag zur Frage des hebräischen Tempusystems* (ATSAT 17; St. Ottilien; EOS Verlag, 1983). 그의 이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동사의 형태들의 문법적인 기능들이 노에틱 체계 안에 정리하여, 어떻게 하나의 동사의 형태가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 유형론적 입장에서 시상과 시제와 양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의 성과로 통해서, '문맥에 따른 이해'라는 표현 안에 이루어졌던 구문분석이 범주화되었다. 국내 학자 중에 하나의 동사 체계 안에 시간과 상, 양태를 공히 다룬 논문으로는 우상혁, "성경 히브리어 동사형태 연구: 시간, 상, 양태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17(2011), 41-73, 우상혁과 다르게 약간, 장성길은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의 발화수반행위 이론과 양태성 개념에 기초한 텍스트의 기능에 대한 소고", 『성경과 신학』 54(2010), 1-34,에서 양태가 <익톨>(yiqtol)과 <베카탈>(weqatal) 주된 기능임을 역설한다.
- 8) A. Denz, "Tempus und Aspekt? Vorstellung eines neotischen Modells," N. Nebes (Ed.), *Tempus und Aspekt in den semitischen Sprachen* (Jenaer Beiträge zum Vordern Orient Band I; Wiesbaden: Harrassowitz, 1999), 37-41.
- 9) E. Koschmieder, "Zur Bestimmung der Funktionen grammatischer Kategorien,"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Carl Winter, 1965), 12f. 55.
- 10) 노에틱은 복수언어 간의 불변의 상수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야이다. E. Koschmieder, "Die noetische Grundlage der Syntax",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Carl Winter, 1965), 70-89.
- 11)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Zürich: TVZ, 1994), 205.

시점'(Zeitlage)을 표현하는 것이고, 화자의 시점에서부터 현재, 과거, 미래란 시제가 표현된다.<sup>12)</sup> 이 주기능으로 부터 '시간경과'(Zeitverlauf), 동작상(Aktions-/Ablaufart)과 방향계수(Richtungskoeffizient: prospektivisch vs. retrospektivisch)라는 지표를 통해서 동사의 부기능들(Nebenfunktionen)이 파생된다. 단순한 히브리어 정동사 전개에서, yiqtol을 예로 들면, 그 주기능은 내러티브에서 '미래의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다.<sup>13)</sup> 미래가 미완성된 진행의 형태임으로, yiqtol의 '회법적인 기능'을 표현 할 수 있다. 주기능이 중단될 때는 부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yiqtol의 시간경과를 보면 '미완료적'(imperfective)이다. 이로 통한 yiqtol의 부기능은 '일반적'(Generalität)이거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사건'(Iterativität)을 표현하는 것이다.<sup>14)</sup> 또한 yiqtol의 동작상은 '일순간적'(punctual/temporality)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yiqtol의 또 다른 부기능이 파생되는데, 그것을 '개시형'(Ingressiv)이다. yiqtol의 방향계수는 진행적(Progressiv ↔ Retrospectiv)으로 과거에서 미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주기능이 멈추고 부기능으로 전환될 때, 일반적으로 바브접속법은 도치되거나 변환이 되는 것이 그 특징으로 관찰된다.<sup>15)</sup> 한 문장 내에서, 하나의 동

12) 권성달은 종전의 문법적은 체계에서 '시제'와 '사상'의 개념을 잘 해설하고 있다. "시제(tense)란 과거, 현재, 미래 등과 같은 시간(time)의 위치(시점)을 가리키는 표지이며 상(aspect)란 완료, 미완료, 진행, 반복 등과 같은 시간의 관계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권성달, 『구약성경 히브리어』 개정 3판 (서울: 그리스심, 2018), 82, 각주 2.

13) 오민수, "고전 히브리어의 노에틱적 해설과 그 적용: 욥기 1:1-5," 『성경원문연구』 40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6), 1-22.

14) '일반적인 사건'과 '반복-습관적인 사건', 그리고 '단회적인 사건'은 의미론적 차이가 있다. 가령, '새가 노래하였다'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다. '새가 자주 노래하였다'(또는 '새는 노래하곤 한다')는 '반복-습관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새는 항상 노래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분류된다. 마지막 경우는 '새=노래하는 동물'이라는 전형적인 종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15) [개정] (사6: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리라"에서 동사구문론을 살펴보면, wayyiqtol we-x-yiqtol이다. 4a의 wayyiqtol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4a의 we-x-yiqtol에서 yiqtol의 주기능은 멈추고, 일시적인 동작상만 표현한다. 그래서 4b는 과거의 사건의 진행의 개시점인 Ingressiv를 의미하게 된다. 동사 구문론적 이해를 반영해보면, 4b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기 시작하리라'로 독법된다. 물론, 다양한 부기능이 어떻게 생겨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느냐는 노에틱적 설명과 문맥적 이해가 요청되어, 다소간의 히브리어 구문론적 훈련이 필요하다. we-x-qatal의 경우, 오민수, "초사법적 해법의 장: 동물보호규례-출애굽기 23장 4-5절과 그 맥락," 『구약논단』 64 (2017), 43-71을 참고하라.

작형이 - 단순형이나 복합형과 상관이 없이- 동시에 여러 기능을 동시에 표현하지 않으며 한 기능만 표현하게 된다.

노에티적 해설에 따르면, 복합형인  $w^{\text{qatal}}$ 은 단순형인  $yiqtol$ 과 쌍이 된다. 그래서  $w^{\text{qatal}}$ 의 주기능은 역시 미래이며, 시간경과로는 ‘미완료적’, 동작상으로 ‘일순간적’이고, 방향계수는 진행적이며 진행을 뜻한다. 미완료적인 성격으로 통해서, ‘반복’ 또는 ‘습관’이라는 기능<sup>16)</sup>을 가지며, ‘일순간적’인 성격을 통해서 사건의 미래적 진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형인  $yiqtol$ 이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자유로운 반면, 복합형인  $w^{\text{qatal}}$ 로 내러티브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동안 그 형태를 도치시키지 못한다.

노에티적 사례에 따라 전도서의  $w^{\text{qatal}}$ 의 구문론적 기능을 살펴보면,<sup>17)</sup> ‘동위 완료’(perfect of coordination: 전 2:5, etc), ‘화법적 기능’(modal function; 전 5:5b, etc), ‘미래의 개별적인 사건’(individual event in future; 전 1:13a, etc), ‘과거의 반복/습관’(iterativum in past; 전 10:3, etc)이다. 전도서에서 아람어적인 어법으로  $wayyiqtol$ 을 대치하는 경우는 전도서 5장 14절[MT 5:13]; 9장 14-15절이 전부이다. 이러한 언어학적 증빙은 전도서의 동사 구문론적 근거로 ‘전도서가 아람어적 어법을 사용했다’라는 기존의 학설을 재고하게 한다.

### 3. 동사 결합가 이론에 따른 $Pi^{\text{e}}$ 의 의미론적 기능

동사의 결합가 연구는 연구의 카테고리를 - 시제, 시상, 태, 동사종류 - 보다는 ‘동사 어휘 속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나 동작의 형태에 주목하였다. 언어

16) [개정] (사6: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에서 동사구문  $w^{\text{qatal}}$ 을 사용하고 있다.  $w^{\text{qatal}}$ 의 주기능은 미래의 단회적인 사건/동작이다. 3a에서 미래의 주기능은 유효성이 상실되고, 미완료적인 동작상으로 인하여 부기능(과거의 일반적인 사건)이 작동된다. 그래서 3a는 ‘그들 = 서로 부르는 자’로 이해되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천군들 중 스랍들의 전형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다.

17) Minsu Oh, “Überlegung zu den syntaktischen Funktionen der Fügung  $w^{\text{qatal}}$  I Koh”, Reinhard G. Lehmann & Kwang Cheol Park (Eds.), *Kleine Untersuchungen zur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und seiner Umwelt* 19 (Kamen: Hartmut Spenner, 2015), 201–224.

학에서 '시상'(aspect)이란 일반적으로 동사적인 진술이 말해지는 시점 밖에서 사건(미완료)인가, 아니면 시점 내에서의 사건(미완료)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결합가(valency) 이론에서 동작상(Aktionsart/lexical aspect, situation type, actionality, dynamicity)은 어휘의 의미에 내재하고 있는 '시간관계'(Zeitverhältnis)가 결정적인 판별 지표가 된다. 특별히 동사의 결합가에 있어서 그 동사의 의미가 '정적인가'(static), '역동적인가(dynamic)', '비목적적인가(atelitic) 또는 '유목적적인가(telitic)<sup>18)</sup>,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가 '일시적인가(momentary), '지속적인가'(durative)를 분명히 밝히려고 시도한다.

벤들러(Z. Vendler)<sup>19)</sup>는 동사의 '동작상'(Aktionsart)에 따라 9가지 카테고리(속성-, 진행-, 시간경과, 장소이동, 지각, 동작, 운반-, 접촉, 소동동사)에 있는 모든 동사를 네 가지로 세분한다. 그 항목은 I. 상태(state), II. 활동(activity), III. 수행(accomplishment, 결과를 내포한 행위경과), VI. 성취(achievement, 행위결과)가 된다.

네 번째 카테고리인 '성취동사'는 도달된 상태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성취'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특정 목적을 향한 진행이 없는 체 '작위'(factitive)나 '결과'(resultative)를 표현한다.<sup>20)</sup> 히브리어 어간형들은 동사의 속성을 수정해 준다.<sup>21)</sup> 이를 '동사의 활동양태'(Aktionsart)와 연관시켜 보면 Hif'il이 '수행'을 함의한다면, 작위형인 Pi'el은 '성취'를 표현한다. 히필은 한 동사의 '내재적인 목적'(inhärentes Ziel)에 도달하는 동안의 '지속되는 수행'을 표현한다면, 피엘은 행위가 어떻게 진행(Vorgang)되었는지는 생략하고 단지 '경과(Hergang)

18) Howard B. Garey, "Verbal Aspect in French," *Language* 33 (1957), 91-110. 게리는 동작동사를 목적성과 비목적성으로 나눈다. 목적성이란 동사 안에 설비된 목적을 도달하기까지 지속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 비목적성 동사는 동사가 의도하고 있는 어떤 목적도 없다.

19) Z. Vendler,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66 (1957), 143-166.

20) E. Jenni, "Aktionsart und Stammformen im Alten Hebräischen: das Pi'el in verbesserter Sicht," J. Lüchinger & Hans-P. Mathys & M. Sauer (Eds.), *Studien zur Sprachwelt des Alten Testaments II*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2005), 77-106.

21) Minsu Oh, *Sprachliche Gestaltung und Semantik - Untersuchungen zu den biblischen Büchern Proverbien und Kobolet* (Kieler Theologische Reihe; Münster: LIT, 2014), 40-41.



된 결과'(erreichtes Ziel)만을 나타내는 '성취'를 표현한다. 피엘은 그 되어진 경과에 있어서 개방적이기 때문에, '활동동사'(Aktionsverb)의 경우 피엘형의 어간은 실제(real)를 뜻하는 작위(factitive)이거나, 단지 사고 속에 펼쳐지는 평가적(aestimative)이거나, 언표 속에 있는 선언적(declarative)이거나, 단회적(single)이거나 또는 습관적(habitual)일 수 있다. 동작상에 비추어 히브리어 동사를 분석해 보면, '수행동사'들에는 사전적인 어간형 피엘만 있고, 히필을 수록되어 있지 않다.<sup>22)</sup> 이것은 '수행동사'들은 피엘로 통해서 '성취동사'로 이미 변경 가능하기에, '수행동사'는 사역형 히필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수행동사'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는 사역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Piel은 형용사(또는 verba stativa)를 타동사로 만드는 작위적 기능(factitive)을 하고 있다.<sup>23)</sup> Piel의 동작상은 도달(achievement/erreichtes Ziel)이다. 그것은 어느 상태가 실현되는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며, 동작의 과정은 표현하지 않고 있다.

예) 상태동사 문장: (Qal) 조약돌이 거칠다 → (Piel) 그는 조약돌을 거칠게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엘'에서는 동사에 내재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양식의 '경과'가 표현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엘은 복합적(Komplexivität) 동작을 의미하며, 습관적인(habituell)<sup>24)</sup> 것을 함의하고 있다. 즉, 주어('그')와 목적어('조약돌')와의 관계는 지속적, 연속적, 반복적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sup>25)</sup> 또한 목적어('조약돌')와 주동사('거칠게 하다')의 관계에 있

22) E. Jenni, "Aktionsart und Stammformen im Alten Hebräischen," 91.

23) E. Jenni, "Faktivit und Kausativ von  $\text{כָּבַח}$  „zugrunde gehen“," B. Huwlyer & K. Seybold (Eds.), *Studien zur Sprachwelt des Alten Testaments I*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2005), 77-106.

24) Cf. D. Michel, *Tempora und Satzstellung in den Psalmen* (Müllheimer: Bouvier, 1960), 108-121. 미셸은 비본질적이라는 의미에서 '우발'이라는 개념을 '주어와 동작'의 관계 규정이 아니라 '동작과 목적'어 관계 규정에 사용하고 있다. 그의 '주관적인 상(subjektiver Aspect)'에 따르면, 완료로 표현된 행위는 주어의 입장에서 '우발적인 반면, 미완료는 '본질적(substantiell)인 성격의 행동을 지시한다.

25) E. Jenni, "Aktionsart und Stammformen im Alten Hebräischen," 98.



어서, 당연히 피엘은 ‘비필연적인 것’(akzidentiell)<sup>26)</sup>을 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간형 피엘로 통한 의미가 변형 이전에, 이미 칼 형에서 ‘상태동사’의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4. 선행적인 번역 고찰

동사 구문론적과 결합가 이론으로 통한 본격적인 구분 분석이전에, 연구자는 동일 계열의 국역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개정]과 [한글]의 전도서 12장 9-10 절을 대조<sup>27)</sup>해 봄으로써 번역 안에 담겨진 ‘의미의 이동’(Sinnverschiebung)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개역개정]	[개역한글]
9a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9a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9ba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9ba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9bβ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9bβ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9bγ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9bγ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aa 전도자는 구하였나니	10aa 전도자는 구하였나니
10aβ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10aβ 힘써 아름다운 말을
10b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0b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우선 두 역본 모두, 9bγ-10b까지 동일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과 [개역]은 9a-9bβ까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개정]은 9a-9ba를 ‘인과적’(causative)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전도자의 지혜자됨이 백성을 가르치는 구실이 된다. 지혜자인 그와 백성을 가르치는 활동 사이는 필연적인 요소가 부과되

26) E. Jenni, "Faktiv und Kausativ," 22.

27) 필자와 동일한 접근 방법론적 시도는 아니지만, 이종율/하계상,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21(2016), 76-104에서 마소라 본문을 거시적 소시적 문맥 속에 번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직 어휘의 정확한 규정을 위해 대소문맥적 이해와 어원론적 접근으로 한정되었다.

게 된다.<sup>28)</sup> 이에 따르면, 전도자의 사회적 지위(신분)는 ‘지혜자’이다. 반면, [개역]에 따르면 전도자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지혜자는 아니었지만, ‘지혜롭다’는 개인적인 속성을 말한다. 그가 ‘지혜로움으로’ - ‘지혜가 있었기에’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고 한다. 즉, 전후관계를 ‘결과적’(consecutive)으로 해석하고 있다.<sup>29)</sup> 결과적인 연결은 전도자와 그의 가르치는 활동 사이에 구속력을 심어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전도자의 가르치는 활동은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 9a-9ba까지 두 번역의 공통점은, 전도서의 책 저자가, 마치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 전도자가 살아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뉘앙스(nuance)를 주고 있다. 다만 9a-9ba의 연결이 ‘인과적’인가 아니면 ‘결과적’인가에 대한 마소라 사본상의 준거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9bβ를 비교해 보면, 번역은 “또”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부차적인 정보’(additional information)를 알려주고 있다. [개역]에서 ‘묵상하고 궁구하였다’라는 것은 전도자 개인의 ‘주관적인 성찰’(subjective reflection)을 함의 하고 있다. 반면 [개정]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라는 표현은 전도자의 작업이 전문인(professional)으로서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연구 활동’임을 말하고 있다.

9bγ는 두 번역 모두 전도자가 잠언을 많이 기록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10절은 앞의 잠언을 많이 짓던 작업을 상세하게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다. 그의 격언 짓기 작업의 신뢰성(정직하게 기록)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역의 비교를 종합해 보면, 두 번역본 모두 저자가 전도서란 책을 집필할 당시 ‘전도자’란 사람이 생존해 있었고 그의 작업이 신뢰할 만한 것을 변호

28) 남기심/고형근,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5), 388. 1. 먼동이 뜬다. 2. 별들이 사라진다. 1+2 [인과] 먼동이 뜨니까 별들이 사라진다. “앞절의 사실이 뒷절의 사건의 원인을 따져서 밝히는 것이요.”(389) 인과적은 단지 원인만 말할 뿐 아니라 주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 의무적인 성격을 부여 한다. 3. 비가 내린다. 4. 나는 우산을 쓴다. 3+4 [인과] 비가 오기에 나는 우산을 쓴다. 즉,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우산을 쓰지 않았다 (또는 ‘쓸 필요가 없었다’).

29) 비교 남기심/고형근, 389.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의 지속을 보이는” 연결어미로는 ‘~아서/어서/러서’가 있다. 결과적 맥락은 행위 주체의 선택적 여지를 남겨둔다. 1. 비가 내린다. 2. 우산을 쓴다. 또는 ‘택시를 탄다’ 또는 ‘집에 있다’ 1+2 [결과] 비가 내려서 나는 우산을 쓴다. 또는 비가 내려서 나는 택시를 탄다. 비가 내려서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해 주고 있다. 두 번역본 사이의 차이점은 전도자의 지혜와 백성을 가르침 사이에, 한쪽은 인과적인 맥락에서, 다른 한쪽은 결과적인 맥락에서 번역하고 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의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

## 5. 구문론적 동사결합가적 재조명

### MT 전도서 12장 9-10절

וַיִּתֵּן שְׂהֵיָה קִהְלֵת חֶכֶם	w <sup>c</sup> qotel RP qatal	9a	그 밖에 코헬렛은 한 사람의 지혜자였다.
עוֹד לְמַדְרֵשֶׁת אֶת־הָעָם	qatal	9ba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그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וְאָזַן וַחֲקֵר	w <sup>c</sup> qatal(x2)	9bβ	전문적으로 비교하고 연구하고
תִּקַּן מִשְׁלֵיִם הַרְבֵּוּהַ:	qatal	9bγ	격언들을 수없이 교정하였다.
בְּקֶשׁ קִהְלֵת	qatal	10aa	요약컨대 코헬렛은 구하였다.
לְמַצֵּא דְבָרֵי־חֵסֶן	liqtol	10aβ	유쾌한 말들을 찾아내고
וְכִתּוּב יִשָּׂר דְּבָרֵי אִמְתּוֹ:	w <sup>c</sup> qatul	10b	기록된 것들은 바르며 진리의 말들이다.

#### 1) 9a-9ba 이해

9a의 문장을 여는 어구 접속사 וַ(바브) + וַיִּתֵּן(요테르)는 여러 해석의 방향이 가능한 구절이다. 먼저 ‘요테르’(yōtēr)는 능동분사 3인칭 단수 Qal로, 전도서 12장 9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사용된다. ‘yōtēr’라는 어형은 전도서에서 총 7회 사용되는데, 전도서 2장 15절; 6장 8,11절; 7장 11,16절; 12장 9,12절이 그 구절이다. ‘요테르’가 접속사 ‘바브’(w<sup>c</sup>)와 결합되는 경우는 전도서 12장의 두 구절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전부인 특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바브’(w<sup>c</sup>)와 결합되지 않은 ‘yōtēr’의 용법을 살펴보자. 전도서 2장 15절([개정]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 [MT 직역] “우매자의 운명과 같이 나에게도 닥치리니 내가 어찌하리고<sup>30)</sup> 그렇게 대단히 지혜로웠던고?”에서, 부사적으로 ‘대단히’(überaus/extremely)란 의미로 사용된다(참고, 전 7:16). 부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yōtēr’라는 단어가 문장 중에 다른 명사적인 구성요소와는 별도로 떨어져 있으며,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다.

‘yōtēr’는 분사의 특성상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yōtēr’는 우월함(Vorzug/preference, advantage)이란 의미로 사용된다(Holladay, 132). 전도서 6장 8절과 11절은 바로 그 예에 해당한다. 전도서 6장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MT 직역 “지혜자에게 우매한 자보다 어떠한 나음이 있는 것인가”)에서 [개정]에서는 ‘yōtēr’를 ‘나은 것’으로 번역하여 관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정] 전도서 6장 11절도 마찬가지로,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MT 직역 “이는 헛된 것을 많아지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이라 - 사람에게 어떠한 나음이 있는가?”)에서는 명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참조, 전 7:11).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yōtēr’는 주로 **מָה**(마/무엇)라는 의문사와 붙어서 함께 등장한다.

전도서 7장 11절, [개정]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sup>31)</sup>이 되도다”(MT 직역 “지혜는 유산과 더불어<sup>32)</sup> 좋고<sup>33)</sup> 해를 보는 자에게 나음이 있도다”)에서, ‘요테르’는 11b에서 **מָה**(마)가 아니라 접속사 **וְ**(베)와 함께 사용되나, 12장 9,12절의 경우와 같은 구문론적 특이성은 지니지 않으며 단지

30) **מָה**(람마)는 의문사 중에 목적에 대한 질문을 이끌고 있다. D. Michel, “..Warum“ und „Wozu“? Eine bisher übersehene Eigentümlichkeit des Hebräischen und ihre Konsequenzen für das alttestamentliche Geschichtsverständnis”, *Studien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alttestamentlicher Texte* (TB 93; Berlin: Gütersloh 1997), 13-34.

31) 국역 성경은 분사인 ‘요테르’를 구문론적 기능을 구별하지 않은 체, 일반명사인 **יִתְרוֹ**(이트르/유익)과 동일의 미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전 2:15).

32) 전치사 **מֵעַם**(임/함께)은 ‘...같이’라는 부차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전 2:16).

33) 전도서에는 ‘좋은’이라는 **טוֹב**(토브)와 ‘아름다운’이라는 **יָפֵה**(야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토브’는 단순히 ‘좋은’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요테르’의 어근은 יָתַר(야타르)로 기본형인 칼에서 ‘남다’, ‘남겨두다’ (Holladay, 148)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명사형인 יִתְרוֹן(이트론/유익)은 상업적인 용어(a commercial term)<sup>34)</sup>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잉여’, ‘여분’, ‘수익’ 등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도서 연구자들의 사이의 공통적인 견해<sup>35)</sup>이다 (“outcome, profit, benefit”, Holladay, 149).

전도서 12장 9-11절, 12-14절은 전도서의 에필로그(epilog)인데, 학자들에 따라 제1에필로그, 제2에필로그로 구분해서 보기도 한다.<sup>36)</sup> 종전까지 주류적인 연구에 따르면, 전도서의 집필자가 전도서의 이질적인(strange) 내용들을 다소 교정하려는 의도로 전통적인 주해(traditional glossa)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구문론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9절과 12절의 두 개의 에필로그는 각각 בְּיֹתֵר(베요테르)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전도서 책 전체가 ‘하나의 기획적인 작품’으로 의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도서 12장 9-14절은 전도서 전체의 맺음말 부분에 해당한다. 전도서의 서두인 1장 2,3절은 책 전체의 종결부인 전도서 12장 8,9-14절과 대구를 이룬다.

A	motto	전 1:2절 הַבְּלָה(헤벨/헛됨)
B	“어떤 유익(‘남은 것’)이 있는가?”	전 1:3절 מִהַיִתְרוֹן(마이트론)
A'	motto	전 12:8절 הַבְּלָה(헤벨)
B'	“그리고 ‘남아있는 것’”	전 12:9절 בְּיֹתֵר(베요테르)
	“그리고 ‘남아있는 것’”	12절 בְּיֹתֵר(베요테르)

34) R. Gordis, *Kobeletb - 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3<sup>rd</sup>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205.

35) N. Lohfink, *Kobelet*, 3<sup>rd</sup>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20.

36) L. Schwienhort-Schönberger, *Kobelet* (HThK.AT; Stuttgart: Kohlhammer, 2004), 544-545.

A에서 ‘악구’(*motto*)로 시작한 코헬렛의 외침은 A’에서 똑같이 모토로 마무리되고, “어떤 유익(‘남은 것’)이 있는가?”로 열었던 화제는 2회의 “그리고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전도서 책 전체의 이러한 구조는 저작자의 의도적인 작업이라는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어구 *בְּיָתֵר* (베요테르)를 해석할 두 가지 방향을 지시해준다. 첫째, 책 저작기술적인(*buch-technisch*) 측면, 그리고 둘째, 구문론적(*syntaktisch*) 측면이다.<sup>37)</sup> ‘책 저작기술적인 이해’에 따르면 ‘베요테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초언어적 장치(*meta-linguistical device*)로 전도서 12장 9-11절의 본문을 전도서 1장 1절-12장 8절의 본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12장 9-11절의 단락이 ‘추가적인 부록’(appendix)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와 반면, 후자인 ‘구문론적 이해’에 따르면 ‘베요테르’는 9a 이후의 하위문장들을 도입하는 구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주문장인 9a는 후속문장 9ba와 ‘비접속연결법’(*asyndesis*)<sup>38)</sup>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접속연결법’은 사건(행동)의 진행을 더 진행하지 않고, 화자가 그 지점에 진행을 멈추고 서서 바로 앞의 사실을 해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9ba-γ의 구문들은 “코헬렛은 지혜자였다”(9a)라는 사실로부터, 코헬렛이란 인물이 - 백성이나 다른 인물과는 다르게 - 지혜자로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나열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베요테르’ 문장 이하의 하위문장(*subsentence*)은 코헬렛의 비범함(*extraordinary*)을 부각시키는 것<sup>39)</sup>이 구문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이 구문론적 의미를 풀어 옮겨보면, 9a-b는 “그 (밖)에) 남은 것은 코헬렛이 지혜자였다는 것이다. 즉, 그는 지속적으로(Dauer/

37) 비교, N. Lohfink, “Zu einigen Satzeröffnungen im Epilog des Kabeletsbuechs,” A. A. Diesel & G. G. Lehmann & E. Otto & A. Wagner, „Jedes Ding hat seine Zeit“. *Studien zur Israelitischen und altorientalischen Weisheit. Diethelm Michel zum 65. Geburtstag* (BZAW 241; Berlin & New York: 1963), 131-147.

38) E. Kuhr, *Die Ausdrucksmittel der konjunktionslosen Hypotaxe in der ältesten hebräischen Prosa. Beitrag zur historischen Syntax des Hebräischen* (Beiträge zur semitischen Philologie und Linguist 7; Hildesheim: Olms, 1927), 33-35.

39) 비교, L. Schwienhorst-Schönberger, *Kabelet* (HThKAT; Stuttgart: Herder, 2004), 546.

continuity; cf. HALAT, 752)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로 의역할 수 있다.

그의 가르침은 엘리트 그룹이 아닌 폭넓은 **אָמ**(암/민족, 백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코헬렛의 주된 작업과 관심은 지식층들(왕, 귀족, 지혜자 etc.)보다 평범한 못 사람들(‘백성’)이었다. 그는 지혜의 저변확대<sup>40)</sup>를 위해 노력하였던, ‘백성의 교사’(Volkslehrer)였다.

## 2) 9bβ-γ의 이해

HALAT, 27b는 **אָמ**(‘알렘-자인-눈’)의 어근 **אָמַן**(모즈나임/저울[추])에서 파생되었으므로, 그 동사적 의미는 abwägen(weigh up)이라고 제시한다. 클뤼거(T. Krüger)<sup>41)</sup>와 서우(C.-L. Seow)<sup>42)</sup>는 **אָמַן**(잇젠)이 **אָמַן**(오젠/귀)에서 유래되었다고 가정<sup>43)</sup>하며, 그 의미를 (ab)hören(hear)으로 제안한다. 이 단어의 어원론적인 논의를 떠나서, 대소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9bβ-γ의 작업은 당시 일반적으로 회자되었던 지혜(자)의 말들(격언들)에 대해 비평적(critical)이고 성찰적인(reflective) 작업을 거쳤던 그간의 코헬렛의 활동(activity)과 무게를 측정하듯 달아보는 표상은 놀랍게도 일치한다. 그리고 이미 9ba에서 화자는 코헬렛을 ‘백성의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9bβ-γ의 작업을 그가 수행했던 일상의 (직업적 성격의) 활동이었다고 보는 것에 타당성을 더해 준다. 더욱이 이 견해는 동사의 결합가(verb valency) 이론과 동사 구문론(verb syntax)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40) T. Krüger, *Kobelet* (BK 19; Neukirchen: Neukirchener, 2004), 367. Im Vergleich mit der Darstellung verschiedener Typen von Weisen in Sir 38,24ff. argumentiert Krüger, hier sei der Gegensatz zwischen dem Konzept einer elitären Bildung einer Führungsschicht für das Volk (vgl. Sir 38,24ff.) und dem Konzept erkennbar. Im Sinne der zweiten Konzepts bekräftigt er dessen in in 9,13–10,3 entwickeltes Votum für eine Breiten-Bildung.

41) T. Krüger, *Kobelet*, 364.

42) C.-L. Seow, *Ecclesiastes* (AB 18c; New York, 1997), 384.

43) 창세기 4:23에서 **אָמַן**(아잔)의 2인칭 여성 복수 Hif'il 명령형(**אָמַנִּי**)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동작상으로 도달동사(achievement)인 Pi'el은 형용사(상태동사)를 타동사로 만드는 작위적 기능(factitive)을 하고 있다. 동작상으로 볼 때, 작위형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는 습관적(habitual)이며 반복적(repeatedly)이다. '도달동사'로 비의지적(non-volitive)이다. 그래서 그 상태에 어떻게 도달하였지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 또한, 동사 구문론적으로 볼 때, w<sup>c</sup>qatal은 '사건진행'(event progress)이 아니라 '정보진행'(information progress)만 제공해 주고 있다. 이 현상은 w<sup>c</sup>qatal 구문의 '주기능'인 시간적인 진행은 멈추어지는 대신, 부기능(동작상)인 지속성(durative)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노에티적 체계에서 w<sup>c</sup>qatal은 습관적(habitual)이거나 일반적인(general) 사건을 표현하는 부기능을 가지게 된다. 9bβ-γ까지 두 번의 w<sup>c</sup>qatal, **וְיָבִיט בְּהִיכָרְךָ/그는 달아보았고 탐구하였다**'는 주어의 일반적인 동작, 습관적인 동작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마소라 악세트 셋트는 이 두 구문을 '므나-자겍카톤'이라는 한 단위로 묶어서, 9ba('지속적으로 그는 그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쳤다')에 종속시키고 있다.

9bβ와 9bγ에서 또 다시 사용된 '비접속사연결'(asyndesis)은 의미론적 층위에서보다는 문장의 형식론적(formal) 측면에서 접속사 마브를 이용한 '열거법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고 ..하고 ..하였다'로 의역될 수 있다. 9bγ의 동사 **יָבִיט**(틱켄)을 분석해보면,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이며 어간형은 Pi'el이며, 어근은 **יָבַט**(타칸)으로 칼 형에서 '곧게 되다'(be straight)<sup>44)</sup>라는 뜻의 상태동사이다. 따라서 '틱켄'의 뜻은 '바르게 하다' = '정정하다'가 된다. 9bγ 역시 코헬렛의 지혜자됨의 활동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는 잠언들을 수없이 교정하였다'는 것이다.

44) Gesenius<sup>18</sup>, 1455; Holladay, 394. 반면 와이브레이(Roger N. Whybray)는 이 동사의 뜻에 관하여, "may mean >arrange< (...); but in rabbinic Hebrew it can mean >set in order< or >establish, ordain<. In Sir 47:9(Hebrew Text) it may mean >compose(music)<. Taken together, these three verbs may refer to the stages in the process of literary composition: experimenting with, working on, and shaping proverbs." (449) 라고 한다. Roger N. Whybray, *The Identification and use of Quotations in Ecclesiastes* (VTS; Leiden: Brill, 1981), 435-451. 와이브레이의 추론은 아카드어 *taqānu*(정돈하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AHW, 1323). 이 세 자음 동사는 아람어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9a-9bγ까지의 구문의 함의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9a: 코헬렛은 지혜자였다.

9ba: 그는 백성의 지혜교사였다.

9bβ-γ: 그는 잠언들을 달아보고, 탐구하고, 수없이 정정하였다.

### 3) 10a-b의 이해

#### (1) 10a-b의 상이한 독법

9절과 10a는 ‘비접속사연결법’으로 연결되었다. ‘비접속사연결법’은 해설기능(explication) 이외에는 결론적으로 요약(resume)<sup>45)</sup>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화자는 ‘사건진행’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10절의 구문론적 기능은 명확하지만, 10b은 문법적인 독법에 있어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견해가 다양하다.

MT	10 וְשָׂרָף קִלְקִילֵי לִבָּאֵי לְפָנָיו וְיִצְחָק וְיִשְׂרָאֵל וְיִזְבְּחֵם וְיִשְׂרָאֵל וְיִזְבְּחֵם וְיִשְׂרָאֵל וְיִזְבְּחֵם
LXX	10a πολλά ἐζήτησεν Ἐκκλησιαστής τοῦ εὐρεῖν λόγους θελήματος 10b καὶ γεγραμμένον εὐθύτητος λόγους ἀληθείας
	10a 코헬렛은 바라던 말들을 찾아내기를 부지런히 구하였다(Aorist). 10b 그리고 -올바로 기록하게 하며 -진리의 말들을,
VUL	10a quaesivit verba utilia 10b et conscripsit sermones rectissimos ac veritate plenos
	10a 그는 유용한 말들을 구하였고(Perf.) 10b 풍성한 진리에 이르는 말들(연설)을 가장 올바르게 기록하였다(Perf.)
LUT	Er suchte, daß er fände angenehme Worte und schriebe recht die Worte der Wahrheit.
	그는 유쾌한 말을 찾고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기록하기를 구하였다.
ESV	The Preacher sought to find words of delight, and uprightly he wrote words of truth.
	그 설교자는 기쁜 말들을 찾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기록하였다

45) R. Bartelmus, *Einführung*, 208-211.

먼저, LXX의 번역경향을 역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LXX는 10a ‘빅캐쉬’(pi.)의 *figura etymologica*를 추가적으로 염두에 두어 ‘폴라’(πολλά/‘많이’, ‘부지런히’)라는 보조적인 의미로 의역하였다(Gemoll, 616). 이러한 LXX의 의역은 9b<sub>x</sub>의 코헬렛의 활동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10b에서 שָׁר וְכָתוּב (베하투브 요세르, 10b<sub>a</sub>)를 형용사구(γενερασμένου εὐθύτητος)로 취급하여 부사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אֱמֶתֶת אֱבָרִי (디브레 에메트/λόγους ἀληθείας)는 לִרְמֵזָה (리메초)에 귀속시켰다.

VUL은 10a에 10b을 각각 독립된 문장으로 독법하였다. 10a의 경우 ‘빅캐쉬’와 ‘베메차’를 합쳐서 쿠에시비트(quaesivit < quaero ‘찾다’, ‘청하다’)로 옮겼고(Pons, 753), 10b<sub>a</sub>의 ‘하투브’를 정동사<sup>46)</sup>로 독법하며, 10a에 대한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10a는 그가 문의한 것이고 10b는 뭔가를 가장 올바르게 기록하여 풍성한 진리에 이르게 하였다. VUL는 특별히 10b<sub>β</sub>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LUT 역시 ‘하투브’(10b<sub>a</sub>)를 정동사로 독법하고 10b 전체를 10a<sub>a</sub>의 정동사 ‘캐쉬’에 종속시켰다. LUT은 LXX와 VUL의 조합임을 알 수 있다. LXX는 코헬렛의 진리를 구하는 행동에 정동사를 사용한다. 이와 반면, VUL는 ‘기록한다’를 정동사로 사용하고 있다. LUT는 코헬렛이 추구했던 것이 ‘말씀을 찾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임’을 말한다.

ESV는 LUT와 대동소이하나, 두 역본 상의 번역의 차이는 ESV가 10a와 10b의 내용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기쁜 말들을 찾는 것과 기록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고 있다.

## (2) 10a-b의 마소라 접근

이제 고대 역본과 현대 역본의 독법상의 차이<sup>47)</sup>를 마소라 본문의 내용과 비

46) VUL이외에 고대 헬라어 역본인 Aquila와 Symmachus 역시 마찬가지로 정동사로 독법하고 있다.

47) 강승일, “구약서역 고대 시기에 나타난 전접어(前接語, enclitic men) 연구,” 『구약논단』 33 (2009), 151-164. 강승일은 역본 간의 차이가 문법적 이해와 발음상의 차이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개연성 있는

교하여, 무엇이 더 타당성 있는 독법인지 구문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בִּקֵּשׁ קְהֵלָה	qatal	10aα	요약컨대 코헬렛은 구하였다.
לִמְצֹא דְבַר־חֵפְזִין	liqtol	10aβ	유쾌한 말들을 찾아내기를
וְכָתוּב יֶשֶׁר דְּבַר־יְאֹנָת:	w <sup>e</sup> qatul	10b	기록된 것은 바르며 진리의 말들이다.

10b은 w<sup>e</sup>qatul으로 구문을 열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해 가능성이 있다. 첫째, w<sup>e</sup>+[[<sup>e</sup>+]qatal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לִמְצֹא(리메초/발견하다, ‘찾아내다’) 부정사 l<sup>e</sup>가 생략되고(참조. 전 1:17aβ), כָּתוּב(카다브/기록하다)의 부정사 연계형인 כְּתוּב(케토브)가 사본의 전수과정의 필사자의 실수<sup>48)</sup>로 인해 כְּתוּב(하투브)가 된 것이다. 이 가정적 설명에 따르면, 10b 전체는 원래 형태는 w<sup>e</sup>+[[<sup>e</sup>+]infinitivus constructus가 된다. 이때 부정사 연계형은 목적어 대용이 되어, 그 뜻은 “진리의 말들을 바르게 기록하기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필사적 실수 없이 본문 그대로 받는 경우이다. w<sup>e</sup>qatul은 접속사 ‘바브’+ ‘칼 남성 단수 수동형 분사’로, 그 뜻은 ‘그리고 기록되었다’이다. 그렇다면 10b에서 단수 주어를 필히 찾아내야 한다. 이 경우에 문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אֵנֹת דְּבַר־יְאֹנָת(티브레 에메트/진리의 말씀들)을 ‘집합명사’로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collective plural)은 바르게 기록되었다”로 번역된다. 그러나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דָּבָר(다바르/말)의 복수가 추상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HALAT, 202).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문법적으로 어려움을 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소라 문장분리 엑센트는 10절의 독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마소라에서 10a와 10b를 ‘아트나흐’로 각각 1/2로 구분하고 있다. 10a의 ‘므나-자셈

논지를 제공하고 있다.

48) E. Tov, *Der Text der Hebräischen Bibel. Handbuch der Textkritik* (Stuttgart: Kohlhammer, 1992), 191ff. übersetzt von Heinz-Josef Fabry,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Bible. An Introduction* (The Biblical Encyclopaedia Library IV; Mosad Biallik: Jerusalem, 1989).

카톤'은 10aα를 10aβ로부터 나누어주고 있다. 그리고 10b는 רָשָׁע (요슈르/올바른) 뒤에 분리악센트 '티프하'가 있어서, רָשָׁע וְקָחוּב (베하투브 요슈르)가 후반절 중 1/2의 비중을 갖는다. 분리 악센트 등급 상, '자캅카톤'과 '티프하'는 '아트나흐'와 '실룩'보다는 하위에 서 있으며, 양자는 동급이다.<sup>49)</sup> 이러한 근거에서 보면, 10a의 וְקָחוּב וְרָשָׁע (빅캐쉬 코헬렛/코헬렛은 구했다)와 10b וְרָשָׁע וְקָחוּב (베하투브 요슈르/기록된 올바른)는 각각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10b의 합당한 독법은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진리의 말씀들이다."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화자는 '코헬렛이 지혜자였다' 라는 사실에 부합된 전문적인 활동들을 나열한 후, 10절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요약: 그는 유쾌한 말들을 찾아내기를 힘썼고,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진리의 말씀이다.’

#### 4) 전도서 12장 9-10절 의미론적 구조

후기(9aα)	코헬렛은 지혜자였다(9aβ)	
	그의 활동(9ba-γ)	(공공적, 9ba)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침 (직업적, 9bβ-γ) 달아봄, 연구, 잠언들 정정
	업적요약(10)	유쾌한 말들을 가려냄(10a), 기록된 것은 참인 말들(10b)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12장 8절에서 '모토'로 전도서 책 전권을 기획적으로 마무리한 후, 9-10절에서 자신의 책의 주인공이었던 코헬렛의 생의 활동과 작업과정들, 그리고 그의 업적으로 총괄 요약하여 주고 있다.

49) 비교, 권성달, 『구약성경 히브리어』, 238-244.

## 6. 나오는 말

번역은 본문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 작업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는 'incarnation'의 작업일 것이다. 어느 시대나 번역은 역자의 문법적, 지식적, 신학적 이해의 옷을 입고 그 시대 속으로 언어화되었다. 원전은 언제나 역자에게 알려진 정도만큼 자신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원전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번역이지만 미처 옹기지 못한 부분은 언제나 남아 있게 된다. 지금까지 연구자는 전도서 12장 9-10절의 [개역]과 [개정]의 번역본을 비교하여 보았다.

두 번역본은 동일 계열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적 차이(semantic difference)가 관찰된다. [개역]에 따르면 백성을 가르친 것은 코헬렛의 지혜로 왔기 때문이다. '코헬렛의 지혜로움'과 '백성' 사이를 '인과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반면, [개정]은 코헬렛의 활동의 일상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지혜자란 지위로써 그는 '결과적인' 맥락에서 가르치는 행위를 수행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전자에 따르면 코헬렛의 활동은 '개인적인 덕행'에 따른 것이고, 후자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전문적인 작업의 성격'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역본의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역본 모두 9ba의  $\eta\eta$ (오드)를 '여전히'라는 용어로 옮김으로써 전도서 저작자가 코헬렛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번역의 차이는 고대나 현대 다른 번역본에서도 발견된다. 전도서 12장 10절을 역본 대조하여 본다면, LXX는 코헬렛이 '진리를 추구하는 노력'에 방점을 두는 반면, 이와 반면 VUL는 코헬렛의 '기록하는 작업'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LUT는 코헬렛의 추구했던 것을 '종합하여' 말씀을 찾고 기록하는 것임을 말한다. ESV는 LUT와 대동소이하나, '기쁜 말들을 찾는 것'과 '기록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고 있다. 고대역본인 LXX와 VUL, 현대역인 LUT와 ESV 모두 공통적으로 10절이 '코헬렛의 활동의 성격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지만, 구문론적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소고는 마소라의 이해를 밝히 파악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검증적인 이해

를 가능하게 하는 ‘노에틱 체계’와 ‘동사 결합가’이론을 활용하였다. 그의 활동 (9ba-γ)은 코헬렛의 공공적(‘백성의 지혜교사’)이고 ‘직업적인 활동’(비교-연구-정정)을 소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코헬렛의 업적을 요약하고 있는데, 삶을 시원하게 하는 좋은 말들 선별하여 기록하였다. 전도서의 저자는 코헬렛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은, ‘진리의 말들’이라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마소라 본문에 따르면, 저자는 ‘공공적이었던 연구 작업’을 ‘진리’(비교. 전 12:11b)와 대등하게 두고 있다. 이것은 코헬렛이 지혜자로서 돌아보고, 연구하고, 교정하였던 지혜의 말들에 ‘진리’<sup>50</sup>라는 권위를 부여해 주게 된다. 저자는 이 권위에 의거하여 기록된 전도서 전체가 사람(백성)에게 유쾌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리임을 웅변하며 ‘마무리 부분’(10a-b)을 장식하고 있다.

## 7. 참고문헌

- 강승일, “구약서역 고대 시가에 나타난 전접어(前接語, enclitic men) 연구,” 『구약논단』 33 (2009), 151-164.
- 김동혁, “쿰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역사에서의 철자 및 음운의 유형론,” 『구약논단』 66 (2017), 356-383.
- 권성달, 『구약성경 히브리어』 개정 3판 (서울: 그리심, 2018).
- 남기심/고형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5).
- 오민수, “고전 히브리어의 노에틱적 해설과 그 적용: 욥기 1:1-5,” 『성경원문연구』 40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6), 1-22.
- 오민수, “초사법적 화해의 장: 동물보호규례 - 출애굽기 23장 4-5절과 그 맥락,” 『구약논단』 64 (2017), 43-71.

50) 이러한 마소라 텍스트 이해는 G. von Rad의 지혜 신학적 견해와 우연치 않게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에 따르면 지혜의 권위의 원천은 사람들의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적 지혜는 신학적 지혜와 조우하게 된다.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n Überlieferungen Israels* (München: Kaiser Taschenbücher, 1960), 430-454.



이상혁, “성경 히브리어 동사형태 연구: 시간, 상, 양태를 중심으로,” 『개혁논  
총』 17 (2011), 41-73.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의 발화수반행위 이론과 양태성 개  
념에 기초한 텍스트의 기능에 대한 소고,” 『성경과 신학』 54 (2010),  
1-34.

이충율/하계상,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에 대한 고찰,” 『구약논  
단』 21(2016), 76-104.

*Gemoll*: Wilhelm Gemoll, *Griechisch-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  
buch*, 9<sup>th</sup> (München: Oldenbourg Schulbuchverlag, 1989).

*HALAT*: Ludwlg Koehler & Walter 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  
amäisches Lexikon I/II* 3<sup>rd</sup> (Leiden: Brill, 2004).

*HAW*: Eduard König, *Hebräisches Aramä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  
tament. Einschaltung aller schwer erkennbaren Formen. Formen der  
Eigennamen sowie der masoretischen Randbemerkungen und einem  
deutsch-hebräischen Wortregister*, 3<sup>rd</sup> (Leipzig: Dietrich'sche Verlag-  
shandlung, 1922).

*Holladay*: William 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ichigan: Grand Rapids, 1971).

*Pons*: *Wörterbuch für Schule und Studium. Latein-Deutsch* (Stuttgart: Klett,  
2003).

Bartelmus, R.,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äischen Aller-  
weltswortes – zugleich ein Beitrag zur Frage des hebräischen Tempussys-  
tems* (ATSAT 17; St. Ottilien; EOS Verlag, 1983).

Bartelmus, R.,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Zürich: TVZ, 1994).

Denz, A., “Tempus und Aspekt? Vorstellung eines neotischen Modells,” N.

- Nebes (Ed.), *Tempus und Aspekt in den semitischen Sprachen* (Jenaer Beiträge zum Vordern Orient Band I; Wiesbaden: Harrassowitz, 1999), 37-41.
-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Eugene: Wipf & Stock, 2004).
- Fernández, Miguel P., *An Introductory Grammar of Mishnaic Hebrew* (ANES 38; Leiden, 1997).
- Garey, Howard B., "Verbal Aspect in French," *Language* 33 (1957), 91-110.
- Gordis, Robert, *Koheleth - 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3<sup>rd</sup>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 Hurvitz, A., "The Chronological Significance of 'Aramaisms' in Biblical Hebrew," *Israel Exploration Journal* 18 (1968), 234-240.
- Isaksson, B., *Studies in the Language of Qoheleth.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Verbal System* (Acta Universitatis Uppsalensis Studia Semitica Uppsalensia 10; Uppsala, 1978).
- Jenni, E., "Faktitiv und Kausativ von אָבַר .. zugrunde gehen," B. Huwlyer & K. Seybold (Eds.), *Studien zur Sprachwelt des Alten Testaments I*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2005).
- Jenni, E., "Aktionsart und Stammformen im Alten Hebräischen: das Pi'el in verbesserter Sicht," J. Lüchinger & Hans-P. Mathys & M. Sauer (Eds.), *Studien zur Sprachwelt des Alten Testaments II*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2005), 77-106.
- Joosten, J., "The Disappearance of Iterative WEQATAL in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Steven E. Fassberg & Avi Hurvitz (Eds.), *Biblical Hebrew Its Northwest Semitic Setting: Typ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Jerusalem: Magnes, 2006), 135-147.
- Joüon, P.,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2<sup>rd</sup>. (Rome; Editrice Pontificio

- Institutio Biblico, 1996).
- Kautsch, E.,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Leipzig: Vogel, 1909).
- Koschmieder, E., "Zur Bestimmung der Funktionen grammatischer Kategorien,"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Carl Winter, 1965), 9-56.
- Koschmieder, E., "Die noetische Grundlage der Syntax,"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Carl Winter, 1965), 70-89.
- König, E., *Hebräische Grammatik für Unterricht* (Leipzig: J.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08).
- Kropat, A., *Die syntax des Autors der Chronik, verglichen mit der seiner Quellen. Ein Beitrag zur historischen Syntax des Hebräischen* (Weimar: Druck der Hof-Buchdruckerei, 1909).
- Lohfink, N., *Zu einigen Satzeröffnungen im Epilog des Koboletsbuechs*, in A. Diesel & G. G. Lehmann & E. Otto & A. Wagner (Eds.), *„Jedes Ding hat seine Zeit“. Studien zur Isrealitischen und altorientalischen Weisheit. Diethelm Michel zum 65. Geburtstag* (BZAW 241; Berlin & New York: 1963).
- Lohfink, N., *Kohelet*, 3<sup>rd</sup>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 Michel, D., *Tempora und Satzstellung in den Psalmen* (Müllheimer: Bouvier, 1960).
- Michel, D., "„Warum“ und „Wozu“? Eine bisher übersehene Eigentümlichkeit des Hebräischen und ihre Konsequenzen für das alttestamentliche Geschichtsverständnis," *Studien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alttestamentlicher Texte* (TB 93; Berlin: Gütersloh 1997).
- Krüger, T., *Kohelet* (BK 19; Neukirchen: Neukirchener, 2004).
- Kuhr, E., *Die Ausdrucksmittel der konjunktionlosen Hypotaxe in der ältesten*

*hebräischen Prosa. Beitrag zur historischen Syntax des Hebräischen* (Beiträge zur semitischen Philologie und Linguist 7; Hildesheim: Olms, 1927).

Oh, Minsu, *Sprachliche Gestaltung und Semantik – Untersuchungen zu den biblischen Büchern Proverbien und Kobolet* (Kieler Theologische Reihe; Münster: LIT, 2014).

Oh, Minsu, “Überlegung zu den syntaktischen Funktionen der Fügung weqatal in Koh,” Reinhard G. Lehmann & Kwang Cheol Park (Eds.), *Kleine Untersuchungen zur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und seiner Umwelt* 19 (Kamen: Hartmut Spenner, 2015), 201-224.

Rendsburg, G. A., “Evidence of a Spoken Hebrew in Biblical Times,” *Dissertations Abstracts International* 41 (1980).

Segal, Moses. H.,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1958).

Seow, C.-L., *Ecclesiastes* (AB 18c; New York, 1997).

Soden, W., “Gab es im vorexilischen Hebräisch Aramaismen in der Bildung und der Verwendung von Verbalformen?,” *ZAH* 4 (1991), 32-45.

Schwienhort-Schönberger, L., *Kobolet* (HThK.AT; Stuttgart: Kohlhammer, 2004).

Tov, E. *Der Text der Hebräischen Bibel. Handbuch der Textkritik* (Stuttgart: Kohlhammer, 1992), 191ff. übersetzt von Heinz-Josef Fabry,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Bible. An Introduction* (The Biblical Encyclopaedia Library IV; Mosad Biallik: Jerusalem, 1989).

Young, I., “The ..Northernisms“ of the the Israelite Narratives in Kings,” *ZAH* 8 (1995), 62-70.

Vendler, Z.,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66 (1957), 143-166.

Von Rad, 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Die Theologie der geschich-*

*tlichen Überlieferungen Israels* (München: Kaiser Taschenbücher, 1960).

Waltke, Bruce K. & O'Conne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Whybray, Roger N., *The Identification and use of Quotations in Ecclesiastes* (VTS; Leiden: Brill, 1981).

검색어

전도서

동사 구문론

동사 결합가

의미론

강세형 능동태

## Philological-interpretative Approach to Ecclesiastes 12:9-10 Based on Verbal Syntax and Valency

Minsu Oh

Lecturer at Daeshin Theological University

Kiel University, Genmay, Dr; theol.

There are many interpretative views and theological diverse observations. In order to authentically translate the biblical text, every researcher of the text needs examinable, philological devices. Thus, in this research the noetic system and the theory of verbal valency are applied to understanding the Masoretic text of Ecclesiastes 12:9-10. The researcher explains about the functions of weqatal and the semantical meaning of the stem Piel. The former expresses iterative event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its verb, the latter formulates a habitual characteristic. So these evidences could indicate that Qohelet was working as a occupational and professional. Through the study, we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in regard to the translation/interpretation of Ecclesiastes 12:9-10: epilogue (9a $\alpha$ ); Qohelet as a wise man (9a $\beta$ ); his occupation (9b $\alpha$ - $\gamma$ )public (9b $\alpha$ ) teaching wisdoms for the people and professional (9b $\beta$ - $\gamma$ ) weighing up, examining,

www.kci.go.kr

correcting; sum of his achievement (10) selecting the pleasant words (10a) + writing the truths (10b).



## Keywords

Ecclesiastes

verbal syntax

verbal valency

semantics

*Piel*

- 투고일: 2018년 6월 27일
- 심사일: 2018년 7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7일

[www.kci.go.kr](http://www.kci.go.kr)